

다문화공간에 나타난 지리적 타자성

- 2000년대 다문화소설을 중심으로

이 미 림*

차 례

- | | |
|---------------------------|--------------------------------|
| I. 다문화공간의
형성 | 2. 젠더화된 성산업의 산실, 이태원 |
| II. 경계 너머 지리적 타자성 | 3. 서울주변의 공단지역, 부천과
고양시 |
| 1. 조선족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리봉동 | III. 타자의 표상 및 장소상실로서의
다문화공간 |

국문초록

· 디아스포라적 상황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다문화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공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자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성산업, 돌봄노동 영역에 대체된 이주노동자는 공장주변과 노래방, 클럽, 기지촌 등의 일터와 옥탑방, 쪽방, 컨테이너, 돼지축사를 개조한 방, 재개발지역 등에 모여 산다. <가리봉 연가>, <가리봉 양꼬치>의 배경인 구로구 가리봉동은 ‘옌벤거리’, ‘작은 중국’, ‘조선족 타운’이라는 명칭처럼 조선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산생

*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 다문화공간은 낙후하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곳으로 소설 결말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우범지대, 슬럼가, 재개발지로 묘사되고 있다. <아홉 개의 푸른 쏘냐>의 배경인 이태원은 윤락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자신이 머무는 옥탑방과 클럽이 안식처나 휴식처가 되지 못하는 러시아 출신 이주여성인 쏘냐는 애인과 브로커에게 폭행, 금전탈취, 강제섹스를 당하며 고단하고 굴욕적인 이산생활을 한다. 성, 돈, 술, 폭력이 도사린 이곳에서 쏘냐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순종적이고 침묵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아시아 여성으로서 다루기 쉬운 초국적 통제대상으로 취급된다. <<나마스테>>, <코끼리>는 공장단지인 부천과 고양시 식사동이 공간적 배경이다.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이곳 역시 허름하고 악취가 풍겨나며 지저분한 재개발지역이다. 두 편의 소설에서는 네팔과 한국, 높고 성스러운 히말라야 산과 낮은 공장단지를 이분법적으로 묘사하면서 차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를 고발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가리봉동과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 서울 주변 공단지역의 다문화공간은 지리적 타자성을 표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공간은 비다문화공간과의 경계긋기가 분명하며 ‘그들’만의 문화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약한 장소감과 장소상실을 갖는 이주자는 사회구성원(한국인) 되기와 정주에 실패한다.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고 불결하며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다문화공간은 우리 사회의 경계 너머에 위치함으로써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요원하다.

주제어 : 다문화공간, 디아스포라 공동체, 장소상실, 지리적 타자성, 별거 벗은 생명, 경계 너머

I. 다문화사회화와 다문화공간의 형성

1990 이후 글로벌 경제와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주자들이 많이 유입¹⁾되었다. 다문화사회화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란 유행어를 낳으면서 ‘다문화’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살아온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2세와의 공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다문화사회화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평등과 관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국내 이주로 인한 사회통합과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국민국가의 약화, 세계시민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한 고민을 요구받는다. 다문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와 다문화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이주자 인권 보호와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화 과정에서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고립된 타자들이 사회의 불안세력²⁾이 될 수 있다.

본고는 ‘다문화’라는 유행어가 단일문화주의와 단일민족의식을 은폐하고자 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외국인이 밀집해 이국적 공동체를 형성한 다문화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부터 주요모티프가 된 다문화소설은 한국 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자 혹은 탈북자, 조선족이 등장하거나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소설을 말

1) 전지구화로 인해 70억의 세계인구 중 국제이주는 2억 명에 이르며, 우리 사회에도 현재 150만 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정식 수교 이후 조선족 70만 명, 탈북자 2만 명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국내 거주자가 많아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60만여 명, 결혼이주여성 18만여 명, 다문화가정 어린이 12만 명 등 외국인 이주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여성의 이주화, 여성의 빈곤화도 이주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2) 장희권 외, 「전지구화과정 속의 타자와 그들의 공간」, 『코기토』 제69권, 2010, 224쪽.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공간을 구역화함으로써 다문화공간과 비다문화공간의 경계를 이루며 균열과 불화, 문화적 차이를 통한 차별을 초래한다.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이란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이루어고 있는 인종적·문화적 교류 및 혼재에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³⁾들을 말한다. 경계적 간 공간 또는 제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내는 다문화공간은 외국인 이주자에 의해 형성⁴⁾되었으며 뜨내기나 방랑자들이 한시적으로 정착하는 여행자의 공간이자 틈새나 문턱과 같은 공간이다. 우리 사회에도 인천 ‘차이나 타운’이나 이태원거리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산의 사할린 동포의 ‘고향마을’,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⁵⁾, 가리봉동 ‘엔벤티거리’와 같은 한민족 다문화공간⁶⁾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만 장이 서는 혜화동 ‘리틀 마닐라’ 등이 생겨남으로서 지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거리, 다문화마을은 공단지대인 안산 원곡동, 서울 가리봉동, 고양 식사동이나 천주교 성당이 있는 마석, 서울 월곡동, 혜화동,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한남동, 이태원처럼 노동환경, 집값이나 종교적 영향 등의 이유로 조성된다. 이주자는 자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젠더화된 직종에 대체되어 종사하며 이들의 거주공간은 공장단지나 시장통, 미군부대 기지촌, 노래방, 클럽 등이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부천, 성남, 여주, 마석, 안산, 고양, 의정부 등 서울주변의 위성도시와 가리봉동, 월곡동, 노량진 수산시장, 영등포 쪽방촌 내지 대림동 등이다. 이 지역은 서울 주변부라는 위계적 지역체계라는 위치성을 나타내며 우리 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채 각각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한

3) 외,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2011, 6쪽.

4) 위의 책, 25쪽.

5) 5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은 2009년 5월 1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어 한국의 다문화수도로 인정받고 있다. 안산역 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메인스트리트인 국경 없는 거리는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다문화거리는 성매매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공간 형성과정에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6) 정병호 외, 『한국의 다문화공간』, 현암사, 2011, 16-17쪽.

. 또한 자국민에게 갈등과 혐오감, 위협과 낙후성, 공포를 전달함으로써 로컬=에스닉=주변부=타자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21세기 전지구화와 글로벌경제로 인해 양산된 디아스포라는 이주사회에 융화 혹은 통합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국/고향을 떠난 이주자가 먼 타국에서 무엇을 구축(building)한다는 것은 하이데거가 주장한 것처럼 곧 거주하는 것이며 거주한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로서 남자와 여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식⁷⁾이다. 낮은 곳에서 정착해야 하는 이주자에게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실존의 본질이 자 존재의 기본적인 특성이며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임을 의미⁸⁾한다. 타자의 언어, 주변적 정체성을 지닌 이주자는 지리적 공간을 통해 타자적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지구상의 속도경쟁의 직접적인 결과가 이민자의 출현이고, 속도의 주된 추세는 인간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 및 쓰레기로 버려진 인간의 생태⁹⁾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주자는 쓰레기, 잉여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다. 초국가주의, 다문화사회라는 표어 이면엔 아감벤이 말한 비인간적 조건이 현실화되는 장소 혹은 정치적 공간의 숨겨진 모형으로서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감시 실행이 강화된 수용소¹⁰⁾와 유권자 국민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불안한 국가¹¹⁾라는 그들이 숨겨져 있다. 폭력과 법을 구분할 수 없는 문턱에서 국가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주자는 법과 사회제도망에 포섭되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 인권과 존엄성을 목살당한 채 제한된 공간에서 고통스러운 이산생활을 영위한다. 예외적인 관계로서만 유지되는 인간 행위의 극한 영역은 처벌받지 않고 살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곳이자 제물로 찬미되지 않고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간의

7) 렐프, 김덕현 외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56쪽.

8) 위의 책, 96-97쪽.

9) 레이 초우, 장수현 외역,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252쪽.

10)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316쪽.

11) 도시인문학연구소, 『경계초월자와 도시연구』, 라움, 2011, 38쪽.

구성¹²⁾되며, 호모 사케르인 이주자는 이 영역에 포획된 벌거벗은 생명이다. 경계 너머 새로 창조된 주변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에서 낯섦과 타자성을 지닌 이주자는 배척되고 열등하게 인식되어 종속됨으로써 법, 상식, 도덕, 국가의 외부에 머문다. 불법체류자, 난민, 탈북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야말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타자로서 지리적 타자성을 갖는다.

II. 경계 너머 지리적 타자성

소설의 주인공인 이주자는 노동과 결혼 혹은 고국을 찾아 도장 또는 탈국경함으로서 낯선 공간에 탈영토화된 사람이다. 이산의 삶을 선택한 이주자는 자신이 타자의 언어, 타자의 문화, 타자적 정체성을 지닌 주변적 위치임을 다문화공간을 통해 재확인하며, 고국의 변방에서 타국의 주변으로의 이동이기에 코리안 드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주자의 삶의 영역은 직업과 연관되는데, 주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공장단지에 정주하며, 여성의 경우 ‘이주자’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타자성이 덧붙여짐으로써 섹슈얼리티 훼손화와 젠더화된 직업환경에 위치지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은 전라도 농촌이나 부천과 같은 위성도시가 삶의 터전¹³⁾이 되며, 여성이주노동자의 직업공간은 식당, 여관, 공장이나 노래방, 나이트클럽, 다방, 단란주점, 기지촌과 같은 유흥업소로 양분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공간과 거주지는 불법과 범죄, 빈곤과 추방의 위협, 절망과 폭력이 난무하는 하층민 계급을 표상한다.

12) , 『벌거벗은 생명』, 또하나의문화, 2009, 86쪽.

13)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 서성란의 <파프리카>의 공간적 배경이 부천과 농촌 등이다.

1. 조선족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리봉동

- <가리봉 연가>, <가리봉 양꼬치>

사회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은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출신이 밀집된 구로구 가리봉동이다. 이곳은 개발독재 시기엔 농촌에서 구로수출공단으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1987년 이후엔 이들이 지방이나 해외로 떠나고 다시 중국조선족과 이주노동자들이 모임으로써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된¹⁴⁾ 지역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소녀시절 공장을 다니다가 이곳을 떠난 <가리봉 연가>의 용자가 십수년이 흐른 지금 다시 찾게 되면서 그전에는 사방이 납작한 지붕들과 공장의 굴뚝만 보였던 예전 가리봉동이 아님을 확인하면서도 알 수 있다. 가리봉동은 산업성장기에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대표적인 산업공단인 구로공단과 생활공간인 별집촌 또는 쪽방촌이 있는 곳으로 한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주자가 모여살고 있다.

소설 제목에 나타나듯이 <가리봉 연가>와 <가리봉 양꼬치>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곳으로 연변음식인 양꼬치나 중국음식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모여있어 한국내 ‘작은 중국’이라는 이국적 정취를 담고 있다.

육교 위에서 가리봉동을 내려다본다. (중략) ‘인성여인숙 육실 완비 TV설치’가 반짝거린다. ‘맥주 양주 개미단란주점’의 간판이 반짝거린다. 용자는 천천히 육교 아래로 내려섰다. 장터식당, 중국음식성, 금고대출, 그리고 알아먹을 수 없는 빨간 한자 글씨체의 간판이 반짝거린다. 인성여인숙, 신도여인숙, 구룡여인숙을 지나 중국전화편, 동북풍미 앞에서 서성거린다. 진초록 상의에 진노랑 바지, 진초록 구두에 노랑 양말을 신은 여자가 바쁘게 지나간다. 18롤짜리 땡큐화장지 가방을 든 아가씨가 지나가고 아이들 한 무리가 손에 초코칩 과자를 들고 삼진오락실 안

14) , 「가리봉을 둘러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로컬리티 인문학』 제6호, 2011, 47쪽.

몰려 들어간다. ‘체육복권 1등 1억원 당첨’이라고 씌어진 노란 휘장 앞에서 이제 막 삼진오락실에서 나온 여학생들이 방자하게 웃고 있다. 손에는 하나같이 핸드폰을 들었다. 술 취한 한 떼의 남자들이 중국식품점 안으로 들어가 금강산 옥수수면이 있느냐고 떼거리로 묻는다.¹⁵⁾

미주 오는 차 두 대가 겨우 길을 비켜갈 정도로 좁은 구로공단 가리봉 오거리 시장통엔 연길양육점(延吉羊肉店), 금란반점(金丹飯店), 연변구육관(延邊狗肉館) 등 한자로 쓰인 허름한 간판이 즐비하고, 어디선가 진한 향료 냄새가 훅 풍겼다. 앞에서 보면 작고 나지막한 옛날 집들이 피곤에 찌든 어깨를 서로 기대며 채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서 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버려진 냉장고며 싱크대, 녹슨 철사 문치 등 온갖 쓰레기 더미를 그려안고 있는 동네였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만큼 폭삭 삭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리는 간판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붉은색으로 인해 겨우 기운을 찾는 듯이 보였다. 이따금씩 머리를 박박 깎거나 스포츠형으로 바싹 치고 짙은 눈썹에 몸집이 건장해 보이는 사내들 몇이 중국말을 주고받으면서 지나갔다. 여름철엔 그런 사내들 팔뚝에 땀이나 호박 모양의 문신이 새겨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¹⁶⁾

속의 가리봉동은 여인숙, 단란주점, 오락실, 중국음식점이 즐비하며 특유의 향료냄새로 비다문화공간과 차별화된다. 이곳에서 이주자는 향수를 달래며 고향음식을 사먹거나 같은 처지의 동족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이국생활에 필요한 환전 및 송금, 국제전화를 할 수 있어 두고 온 가족 혹은 같은 처지의 동족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원색 의상을 한 여자, 아가씨, 아이들, 여학생 등의 여성타자와 술에 취했거나 문신을 한 사내들이 지나가는 이 거리는 권력이 배제되었거나 비상식적이며 무질서하다. 폭력배의 배회는 이 지역을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갖게 하며 위험지대임을 암시한다. 거리엔 단란주점, 오락실, 복권판매점과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을 조장하며 여러 여인숙을 통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15) , 『가리봉 연가』, 실천문학사, 2005, 81-82쪽.

16) 박찬순, <가리봉 양꼬치>,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학지성사, 2009, 73-74쪽.

혹은 이방인이 많은 지역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변환경은 ‘쓰레기더미’나 ‘옛날집’처럼 재개발 혹은 우범지대라는 인상을 풍긴다. 전반적으로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지며 가볍고 경박한 키치문화를 향유하거나 범죄가 예견되는 다문화공간의 낙후함과 열등함을 상징하는 기표로 가리봉동은 표상되고 있다. 재개발의 지연과 황폐화된 공간으로서의 가리봉의 이미지는 다문화라기보다 빈곤과 연결된 계토지역으로 이미지가 더 강화¹⁷⁾되고 있다. 가리봉 거리에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불법체류 이미지와 꿈(코리아드림)과 허상(오락, 복권, 대출)을 쫓는 이산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가리봉 연가>의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인 명화는 전라도 시골로 시집을 왔으나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어 가출한 후 가리봉동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한다. 흑룡강 해림→전라도 농촌→서울 가리봉동 조선족 노래방으로 이동을 한 명화는 신분상승은커녕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명화와 달리 해랑반점, 북래반점에서 일하는 조선족 이주여성 승애와 해랑은 불법체류자이기에 사기결혼이나 재이주를 모색하는 불안정한 신분을 갖고 있다. 명화 역시 도망 나온 처지인지라 허승희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조선족을 상대하는 북경노래방에서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라는 ‘가리봉 연가’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한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혼종적인지를 말해주는 디아스포라의 운명¹⁸⁾이다.

“ , 여긴 우범지대예요. 사건사고 다발지역. 옛날에 여기 공장 많을 때 노동자들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여기 경찰들이 데모 막느라 고

17) , 「한국의 지역 다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 『동북아문화연구』 제27집, 2011, 11쪽.

18) 이미림,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 106쪽.

그 다음에는 또 여기가 가출장소년 이지트가 됐잖아요. 그 청
소년들 선도하느라 고생하다가 지금은 또…….”¹⁹⁾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자, 도피자, 뜨내
기들이 모인 최하층계급의 공간이다. 양고기 썸, 오향오리, 튀김 등의 중
국본토음식점, 식품점, 환전소, 여행사 등이 즐비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면에는 불법, 도박, 성매매,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명화는
이곳에서 결국 강도에게 피살됨으로써 고단한 이산생활을 마감한다.

<가리봉 양꼬치>의 조선족 출신 양꼬치 요리사 임파는 애인과의 미
래를 꿈꾸며 레시피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한다. 월세 10
만 원짜리 쪽방이 있는 가리봉 시장통은 “말이 시장이지 교포 한 명이
어느 집 쪽방에 들어왔다 하면 금세 소문이 날만큼 좁은” 바닥으로 코리
안 드림을 이루려는 조선족 동포들이 웅기중기 모여 정보를 공유하기에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공존한다. 안산의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이곳 다방
으로 옮긴 분회처럼 국지화된 사회적 연계망이 조선족들 사이에 형성되
어 구인과 구직, 사업 등에 필요한 갖가지 도움²⁰⁾을 얻는 가리봉동은 임
파에게 “가리봉이라고 말할 때 울리는 소리에는 시골누나처럼 등을 기
대고 싶은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장소로 ‘발해풍의
정원’으로 상상되는 유토피아의 모형²¹⁾을 실현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은 정보노출과 이주자끼리의 과다경쟁으로 같은 처지의 동족에게 상해
를 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가리봉동이라는 다문화공간은 꿈과 희망, 미래와 정착의 유토피아인 동시에 불법과 폭력, 살인이 발생하는 사건현장이 되는 양가적
인 공간이다. 이곳은 이주자끼리의 정보교환이나 가족들과의 네트워크

19) , 앞의 소설, 104쪽.

20) 최병두 외, 앞의 책, 87-88쪽.

21) 송현호, 「<가리봉 양꼬치>에 나타난 이주 담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357쪽.

형성하며 이국적인 민속 고유의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다문화적·초국가적·국지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뜨내기나 여행자가 밀집된 이곳은 범죄와 불법, 무한경쟁,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며 소설의 결말 장면에서 <가리봉 연가>의 명화가 강도에 의해 길에서 살해되고, <가리봉 양꼬치>의 임파가 라이벌인 동족에게 칼에 찔린 곳이다. 명화와 임파의 죽음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족이 모여든 가리봉동은 사회적 안전망이 실종된 우범지대이며 사기치고 배신하는 도덕성이 실종된 아노미지역이며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사람들의 유랑지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의 최전선²²⁾이다. 즉 이곳은 계급적·민족적 차별성을 지닌 곳으로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경계 곳기로서 위치지어진다. 쪽방 형태의 노후주택이 많은 가리봉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한국지역사회와의 상대적 고립을 강화시키면서 격리현상²³⁾을 낳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는 빠져있고,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가리봉 다문화공간은 다(多)문화 → 타(他)문화 → 저(低)문화로 작동²⁴⁾되고 있다.

2. 젠더화된 성산업의 산실, 이태원

- <아홉 개의 푸른 소나>

‘이주’, ‘여성’, ‘가난’이라는 삼중의 타자성을 지닌 이주여성의 취업은 돌봄노동과 성노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결혼이나 유흥업소에서 서비스업 종사는 주변부 국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 정체성 그리고 타자화된 몸과 이를 근거로 한 노동력이 자리²⁵⁾하기에 이주여성의 노동현장은 식당, 여관이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래방, 클럽, 단란주점 등이

22) , 「다문화소설 속에 재현된 결혼이주여성: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5집, 2011, 148쪽.

23) 박세훈 외,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의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2010, 87쪽.

24) 예동근, 앞의 논문, 12쪽.

25)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제38집, 2004, 197쪽.

. 백인을 선호하는 섹슈얼리티의 호감성향을 지닌 금발머리와 흰 피부의 러시아 여성은 이국적·관능적·신비화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한국남성의 관음증적 욕망의 대상²⁶⁾이 된다. 조건 좋은 직장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능력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은 여성 내재적인 돌봄이나 성적 매력을 발휘하여야 할 아시아의 여성으로 간주²⁷⁾되어 개개인의 단독성은 사라진다. 이주의 젠더화, 빈곤의 여성화로 ‘나홀로’ 이주한 여성들의 이산생활은 고달프고 신산하며 비극적이다.

이태원을 배경으로 하는 <아홉 개의 푸른 쏘냐>의 작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생활하는 쏘냐는 클럽에서 춤을 추는 무희이자 매춘까지 하는 이주여성이다. 러시아 민속무용단원으로 전통적인 원무를 공연하는 일자린 줄 알고 왔으나 클럽 무희가 되어버린 쏘냐가 사는 이태원 거리는 시장, 약국, 의상실, 미용실, 로즈이(장미들) 클럽이 있는 선정적이고 환락적이며 유흥적인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다.

도시 위에서 짓누르던 매연과 소음, 낮 동안에 미처 배설되지 못한 사내들의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 야비한 정육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것을 예감하는 가느다란 허리의 거센 흔들림…….

쏘냐가 마지막으로 춤을 춘 그날도 오늘처럼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는 밤이었습니다. 애무도 없이 사랑을 들이대는 사내처럼 노을도 없이 찾아온 밤. 푸른 안개 속에서 선흥빛 네온사인이 폭죽처럼 터지고, 열정적인 재즈의 울부짖음이 행인들의 공허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이태원 거리를 쏘냐는 해파리처럼 흐느적대며 걸어갔습니다. 나 역시 그녀의

- 26) 경우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말이 어눌한 중년여성’ 이미지로 각인되며, 순종적이고 외모가 한국인을 닮은 베트남여성은 농촌신분감으로 선호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여성은 외모가 이국적이면서도 피부색이 그리 검지 않아서 성적 매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한편,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등 미군부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특히 선호된다. 러시아여성들은 3천 명 넘게 입국하여 수적으로 단연 선두인데, 금발의 흰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 위의 논문, 189~264쪽 참조.
- 27) 김현미,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 평화』 제5권, 2010, 132쪽.

둘러쳐진 샤프에 매달려 습기 어린 여름밤 거리를 쏘다녔지요.²⁸⁾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란한 네온 불빛 아래 쏘냐의 웃음은 갈기갈기 찢겨 이리저리 훑날렸지요. 셋, 다섯, 일곱, 아홉……. 성탄절이 다가 올 즈음에는 이태원 전체가 한국인은 물론 미군 병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종들로 매우 붐볐습니다. 행인들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고 부딪치며, 한데 엉켜 있는 울창이들처럼 몰려다니더군요.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온갖 다양한 코들이 흘러다녔지요. 매부리코, 들창코, 오리 코, 하얀 코, 검은 코, 푸르스름한 코……. 쏘냐는 독을 뿜어대듯 입가에 미소를 뿜어내며 닥치는 대로 그 코들을 방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²⁹⁾

미군 주둔 후 기지촌이 들어서 매매춘과 요식업소들이 발전했던 용산구 이태원은 유흥과 유흥업소가 성행했던 지역³⁰⁾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하게 되자 성매매를 하던 한국여성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³¹⁾이 모여들었다. 춤, 술, 노래, 헤로인, 농담, 웃음, 반라, 네온사인을 내포한 성적 판타지의 공간인 이태원의 이면엔 육설, 매질, 발길질, 범죄 같은 폭력성이 잔인하게 도사리고 있다. “그녀만이 사내들의 몸을 훑아주고 주물러주어야 하는” 이곳에선 술을 따르는 자와 마시는 자, 몸을 파는 자와 사는 자, 춤을 추는 자와 보는 자라는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일방적인 접대로서 감정노동,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쏘냐의 삶은 여권강탈과 빗독촉에 자유를 억압당한 채 굴욕과 모욕을

28) , <아홉 개의 푸른 쏘냐>, 『코끼리』, 실천문화사, 2005, 61쪽.

29) 위의 소설, 74쪽.

30) 송도영,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2011, 12쪽.

31) 평택의 미군기지 부근의 외국인 전용클럽엔 금발로 염색하여 서양인도 한국인도 아닌 필리핀 여성들이 E-6 연예인 비자로 들어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해 3만 원짜리 음료수 ‘주스’를 사주면 춤추고 말 상대를 해주는 주시걸(Juicy Girl)이 생겼다. 손가락질을 받던 ‘양공주’ 자리를 이주여성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이다. 사회로부터 배제된 성노동 및 성산업은 온전한 시민권의 결여와 관련된 노예제와 유사한데, 성매매여성은 일터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버는 것의 공정한 몫을 받으며, 고용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³²⁾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결합되어 포르노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쏘냐는 브로커의 금전적·성적 착취와 반인권적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결국 그를 칼로 찌른다. 영주권과 어머니의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범죄까지 저지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먼로’³³⁾, ‘민달팽이’, ‘밀랍인형’, ‘해파리’, ‘모시나비’, ‘시체’로 묘사되는 쏘냐는 젠더경험, 이주경험, 불법경험을 통한 여성수난을 겪는다. 기괴하고 낮은 이주경험은 식민지 정체성이 지니는 부분적 존재처럼 온전치 못한 삶이자 고향에 있지 않음unhomely³⁴⁾이다. “병적으로 하얗고 마른 무표정의 밀랍인형 같은” 쏘냐는 ‘모시나비’처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날아온 이주여성이지만 이주국에서 애인과 브로커로부터 주먹질과 금전탈취와 강제섹스를 당한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껍데기를 갖지 못한 한 마리의 가련한 ‘민달팽이’ 신세가 되어 ‘해파리’처럼 머나먼 이태원 거리에서 흐느적거리며 ‘시체’처럼 저항조차 못하는 일상을 견뎌낸다. 자유와 섹슈얼리티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이주여성의 생사여탈권이 이주국과 그 국민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푸른 자작나무숲이 있는 고향을 떠나 이태원 사창가까지 내몰린 쏘냐는 껍데기가 퇴화해버려 은신처를 갖지 못한 ‘보잘것없는 원돌이달팽이’ 신세로 존재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달팽이와 껍질(껍데기)은 이주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32) 홈스트롬 엠틀, 유강은 역,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데이, 2012, 343쪽.

33) 이 소설의 제목은 앤디 위홀의 작품명 <아홉 개의 파란 먼로>에서 착상했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는데, 1962년 자살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파편화되고 분열된 얼굴에서 이주여성의 고단하고 불안한 삶이 연상된다.

34) 데이비드 허다트,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146-147쪽.

드러내는 기표이자 보호와 안식, 정주를 의미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① 순간 딱딱한 껍데기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당신의 아름다운 나신이 드러났고, 나는 더듬이 한쪽 끝도 꼼작할 수 없었어요. 뜨겁고도 시린 기운이 온몸으로 번져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잘 알겠지만 당신의 그런 행동은 아주 위험한 거였지요. 달팽이의 몸은 햇볕에 노출되는 순간 금세 물기가 말라버려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42쪽)

②당신은 몸을 움츠리며 껍데기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더니 점액질 얇은 막으로 입구를 막더군요. 나 역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곧 잠들었습니다. (중략) 오래된 전설, 러시아 달팽이들의 고향이라는 바이칼 호수, 그 푸른 물결이라면 그토록 격렬히 흔들렸을까요? (43쪽)

③...매일 저녁 쏘나는 지나치게 많이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달팽이 몸에서 체액이 다 말라버리듯이 그녀 몸속의 힘도 다 빠져 있습니다. (63쪽)

④별거벗은 쏘나는 바닥에 민달팽이처럼 납작 엎드려 꼼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쏘나는 자신을 보호할 껍데기를 갖지 못한 한 마리의 가련한 민달팽이였습니다. (64쪽)

⑤쏘나 역시 그리운 고향땅을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린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천만년쯤 전, 바닷속 고동의 일종이었다는 달팽이들이 바다의 기억을 버리지 못해 온몸으로 점액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65쪽)

⑥우리 달팽이들의 세상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적인 일이 이곳에선 대수롭지 않게 벌어집니다. (67쪽)

⑦한숨과 비탄 속에서 난 고통스레 외쳐대곤 했지요. 잠들고 싶어! 두꺼운 눈을 덮고, 폭신한 나뭇잎 속에서 아기 달팽이들과 몸을 기댄 채... 봄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깊이깊이.....잠들고 싶어! (75쪽)

⑧...창밖에 서 있는 키 큰 누리장나무 잎 위를 세줄달팽이 가족이 기어가는 게 보이네요. 맨 앞에 기어오르는 것은 이 년쯤 된 어린 달팽이, 그뒤로는 갓 태어난 새끼를 껍데기 위에 얹은 어미 달팽이가 보입니다. 흐릿한 모습입니다. 켈레스레스, 지금쯤 자작나무 숲에도 봄이 왔을 테지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어여쁜 새끼 달팽이를 낳았겠군요. (81쪽)

토대에 있어 집(방)과 껌데기는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와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로서 피난처를 의미한다. 삶의 최초의 노력은 조개껍질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 은신처에서 삶은 응집되고 준비되고 변모³⁵⁾한다. 바이칼호수가 고향인 달팽이처럼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쏘냐에게 옥탑방과 클럽은 애인과 브로커로부터 성과 돈을 착취당하는 공간이다. 조개껍질이 지닌 메타포는 은신처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숨기는 존재로서 숨김과 드러냄의 변증법을 함축하고 있다. 안온한 고국을 떠나 탈국경했지만 불법체류, 착취, 폭행 때문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쏘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고 피투성이 채로 도망자 신세가 된다. 조그만 집을 지어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달팽이와 동일시된 이주자는 집도, 가정도, 합법적인 공동체 안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결정적이고 미루어진 공격성³⁶⁾을 표출함으로써 고통을 준 남성을 가해한다. 쏘냐에게 이태원은 “가을 숲의 버섯보다 더 많은 위험과 불운이 널려”있는 곳이다.

가사노동, 성산업, 유흥업, 상업적 매매혼, 인신매매 등 이주의 여성화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화된 양상³⁷⁾을 보인다. 외국인이 밀집된 이태원이라는 다문화공간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별거벗은 생명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이곳은 외국군대 주둔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치외법권 지대에 가까운 ‘예외적 공간’³⁸⁾으로 불법체류자가 은신하기 좋은 곳이며, 폭력과 범죄, 섹스로 인한 사건현장이 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인 쏘냐는 이태원에서 폭력과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순종적이고 침묵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아시아 여성으로서 다루기 쉬운 초국적 통제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녀는 “방향감각을 잃은 나비”, “물살에 못 이겨 이리저리

35)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243-280쪽 참조.

36) 위의 책, 252쪽.

37)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2008, 896쪽.

38) 송도영, 앞의 논문, 15쪽.

수초”, “멀리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빙하기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남방으로 내려왔다는 모시나비”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왔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정착도 못한 이주자의 타자적 정체성만을 확인할 뿐이다.

3. 서울주변의 공단지역, 부천과 고양시

- 《나마스테》, <코끼리>

공장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이 머물다가 떠나간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자리 잡는다. 서울 주변인 부천, 마석,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김포, 고양 등의 공장지대는 외국인 노동자의 밀집지역으로 다문화소설의 배경³⁹⁾이 되고 있다. 초기 다문화소설⁴⁰⁾인 박범신의 《나마스테》와 김재영의 <코끼리>에서의 이주노동자의 비위생적이고 비독립적인 일터와 생활공간은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 고양시 최대 규모의 가구공단이 밀집된 식사동에서 네팔 출신 아버지와 사는 15살의 아카스는 낡은 베니어판 문 다섯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돼지축사를 개조해 만든 방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어에다 러시아어와 영어, 네팔어까지 뒤섞인” 다문화환경에서 소년은 “불행이 너무나 흔해 발에 치일 지경”이라고 느낀다.

39) 배경이 되는 소설로는 <그녀의 나무 핑귀리>, <번지 점프대에 오르다>, <코끼리> 등이 있으며, 부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잘 가라, 서커스》, <이무기 사냥꾼>, 《나마스테》 등이 있다.

40) 2005년에 발표된 두 편의 소설은 초기 다문화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인 희생자라는 단순구도로 그려지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타자 이미지의 고착화와 한국인=가해자, 이주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재현과 이주자를 유순하고 착하며 성스럽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문화소설에서는 혼종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삶을 그리거나 자국민과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나마스테》와 <코끼리>는 이주노동자의 처절하고도 불행한 삶을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이주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소설사에서 유의미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울리는 끄르륵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공장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선다. 메마르고 갈라진 시멘트 길, 칙칙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 공장 지붕 위로 떨어지는 희뿌연 햇빛, 그리고 이따금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가는 짐 실은 트럭들 사이에서 현기증을 느낀다. 오늘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엔 늘 이렇다. 아침에 먹은 치아 한 잔으로는 오후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다.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페인트 냄새, 가구공장의 옷 냄새가 빈속을 메스껍게 한다. 코를 움켜진 채 인력구함, 사채 쓸 분, 빅토리아 관광나이트 따위의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공장 벽과 전봇대를 지난다.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새빨간 물이 도랑을 붉게 물들이며 흘러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갓 잡은 돼지 피처럼 보인다. 헛구역질이 난다.⁴¹⁾

< >의 아카스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람이 나 가출한 조 선족 출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학교에서는 문화적 차별을 받는 다문화 가정 2세이다. 소년의 주거환경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아버지의 폐를 상하게 하는 공장과 옆방의 이주여성 마리아의 반라의 포스터가 벽에 붙여진 나이트클럽이 준비한 비교육적·반인권적·비위생적인 공간이다. ‘칙칙한’, ‘희뿌연’, ‘사나운’, ‘시끄러운’, ‘더러운’ 같은 골목풍경은 이곳이 빈곤하고 낙후된 곳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배신, 사기, 선정, 폭력이 만연한 어른들의 속물스럽고 이중적인 일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⁴²⁾된 채 성장한 소년에게 주어진 공간이란 식사동 가구공단의 “호리명당한 하늘, 깨진 벽돌 더미, 냄새 나는 바람, 집 나간 바람둥이 엄마”가 전부이다. “진성 도색, 화진 스펀지, 원일 공업, 신광 유리, 동북 컨베이어 공업을 지나 가구단지 입구가 있는” 이 동네는 공장에서 뿜어내는 악취와 냄새로 기본권인 건강권마저 해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많아 거주이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제한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41) , 앞의 소설, 15쪽.

42)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집, 2012, 396쪽.

춘지붕 기슭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우리집에 이르는 길 좌우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담벼락이 길고 또 우중충했다. 어떤 오래된 공장들은 공장이라기보다 버려진 폐가 같았다. 실제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부도를 맞아 속이 텅 빈 공장도 더러 있었다. 루핑을 해 얽은 지붕엔 여러 해 쌓인 아카시아 잎새들이 썩고 있는 중이고, 공장 블록 담장의 페인트칠이 푸실푸실 벗겨져 오히려 불쌍사나울 뿐 아니라, 길은 군데군데 패어 물웅덩이도 적지 않았다. 쓸만한 공장들은 이미 외곽의 신흥공업단지로 이사해갔기 때문에 춘지붕 기슭에 남은 공장들은 간헐적으로 서 있는 늙은 아카시아 그늘에 싸여 유난히 더 음습해 보였다.

그래도 춘지의 봄은 언제나 화사했다. 부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춘지봉은 옆으로 누운 여인의 곡선처럼 흘러온 춘의산 남봉인데 그 전망이 뛰어나 일찍부터 부천은 물론 소사, 김포, 부평의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열던 곳이라고 했다.⁴³⁾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사는 부천 지역은 공장단지이자 재개발 구역으로 과거의 허름한 산업단지가 도시미관을 흉하게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우중충’, ‘폐가’, ‘썩고’, ‘벗겨져’, ‘늙은’, ‘음습’과 같이 피폐하고 비참하며 어두운 이미지로 묘사된다. 자국민 노동자가 담당했던 험한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는 고양 식사동과 부천 춘지봉 공장주변은 지리적 타자성을 지니며, 비다문화공간의 경계 너머에 있다. 다문화소설 속의 마을이나 일터, 생활공간은 재개발지역으로 쓰레기를 폐기 혹은 방치하거나 포클레인 소리가 들리는 공사지역이 많다. 불안정하고 가난하며 위기에 처한 이주자의 공간은 타자성을 공유하며 온전한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7번지 재건축 건물부지에 사는 신우에게 어느 날 네팔 출신의 카밀이 화안하게 다가와 머문다. 낮선 이방인들이 출현하는 장소, 이들로 인해 우리 가족의 일상적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곳⁴⁴⁾

43) _____,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17쪽.

44) 문제원,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나마스테>, <잘 가라, 서커스>에 재현된

서사적 공간 부천이다. 나이와 인종 차이를 극복하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타자적 동질감으로 신우는 가족의 반대와 편견을 사랑으로 견딘다. 미국이민생활 중 발생한 가족의 사망,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를 지닌 신우에게 카밀은 배척의 대상이기보다는 타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두 남녀의 공유의식은 이주공간을 통한 이주체험에서도 나타나는데, 카밀에게 있어 한국이 고통의 공간이듯이, L.A.폭동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은 신우가족에게는 미국이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공간⁴⁵⁾인 것이다. 소설의 주요배경으로 시장통, 공장단지과 재건축 지역은 낙후되거나 무질서하며 지저분한 공간으로서 하층민 구역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두 편의 소설에서는 네팔과 한국, 히말라야 산과 공장단지라는 이분법적 묘사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네팔에서 온 <코끼리>의 아카스 아버지는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먼 타국의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폐를 상해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나달나달해진 폐와 “땀과 화학약품과 욕설에 전,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몸뚱이가 풍기는 고약한 단내” 같은 짐승 냄새를 풍기며 전구를 만드는 아버지는 히말라야 산의 천문학 학자에서 낮은 지역의 짐승 같은 노동자로 전락한다. 《나마스테》의 이주노동자들도 이곳에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고 기계에 몸을 다쳐 장애인이 되거나 폭력에 시달리며 휴업급여나 장해보상에도 제외⁴⁶⁾되고 있다.

밤마다 꿈꾸는 그의 고향은 “노란 유채꽃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낮익은 황토 집, 가녀린 통계꽃과 붉은 비저꽃이 흐드러진 고향집 마당에서 가족과 친지와 함께 달과 비트, 더르가리(야채반찬), 물소고기

., 『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 314쪽.

45) 홍원경, 『《나마스테》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제7권, 2009, 154쪽.

46)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35집, 2012, 330쪽.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 풍경이다. 평화롭고 신화적인 네팔과 후미지고 폭력적이며 고단한 식사동 공장단지에서의 삶은 대조적이다. 《나마스떼》에서도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연관된 “꿈속의 설산, 카일라스산”과 같은 네팔 이미지와 폭력과 반인권이 자행되는 한국을 대비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공간은 성(聖)/속(俗), 비자본의 세계/자본의 세계, 네팔/한국, 높은 히말라야 산/낮은 공장지대, 신 같은 천문학 학자/짐승 같은 이주노동자로 대비되어 차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Ⅲ. 타자의 표상 및 장소상실로서의 다문화공간

에드워드 켈프는 장소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이 약화되는 현상, 즉 무장소성이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징후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장소에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뽑힌 삶으로의 변화⁴⁷⁾라고 말한다. 진정성이 결여된 장소상실의 문제는 현대인이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진정한 장소감⁴⁸⁾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생계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국에서 차별과 배제와 불평등을 감수하며 뿌리내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주자에게 장소감의 부재는 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하며 심리적·법적·지역적 내부가 아닌 외부 즉 주변에 위치지어지는 것을 뜻한다. 지구상의 속도경쟁의 직접적인 결과가 이민자의 출현이며, 이민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화와 문화 사이를 여행하는 통과여객으로, 그에게는 집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고향⁴⁹⁾이다.

다문화공간은 자국민과 유리된 채 혐오스럽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서

47) 켈프, 앞의 책, 35쪽.

48) 위의 책, 150쪽.

49) 레이 초우, 앞의 책, 252쪽.

, 열등감, 비서울 내지 서울 주변, 재개발 지역으로 인식된다. 서울 속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은 ‘작은 중국’ 혹은 ‘엔벤티거리’를 형성하며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경계 주변의 자국민에게는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폭력적이고 위험한 구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과 이웃이 되거나 그들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층민이라는 이미지를 공유한다는 의미⁵⁰⁾로 받아들여진다. ‘그들’만의 문화와 공간을 형성하는 이주자는 우리 사회의 노동과 출산을 담당하지만 장소상실로 인해 사회구성원(한국인) 되기와 정주에 실패한다. 다문화소설에 등장하는 지리적 공간은 부천, 이태원, 한남동, 식당동, 가리봉동, 영등포시장 등 과거 공장단지로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 구역이 많다. 특히 가리봉동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집합처이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이방인에게 위로와 정보제공과 민족 고유의 이국적 문화를 창출하지만 경쟁과 범죄와 신상노출이 이루어지는 양가적인 곳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여인숙, 벌집, 쪽방, 옥탑방, 시장동, 컨테이너박스, 재개발 지역 등의 주거환경에서 지저분하고 불안정하며 비위생적이고 남루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일터 혹은 작업공간 역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데, 소음과 먼지, 위험한 기계들 사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장, 식당, 노래방, 다방, 나이트클럽, 여관 등에서 인권 유린과 폭력과 차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진정성을 상실했거나 장소가 심각하게 훼손된 장소상실 경험을 한 이주자에게 해외 이주는 코스모폴리탄 정체성 획득이라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타자적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에서 재확인된다.

다문화소설에 그려진 다문화공간은 불법과 범죄의 온상, 하층민 계급

50) 《완득이》에서도 동주선생은 동네가 후져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모임장소를 교회로 위장하며, 강영숙의 <갈색 눈방울>에서는 ‘유신개발독재시대의 끝무렵에 지었다는 빌라’에 사는 외국인과 더불어 ‘저 빌라에 사는 것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한국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표상, 빈곤과 추방의 공간으로서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와 수단의 거처, 희망과 절망의 경계, 정주와 추방의 틈새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공간의 환경은 비위생적·비교육적·폭력적·선정적·유혹적·즉흥적이다. 험한 3D업종일을 회피하는 자국민 대신 공장, 식당,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방인의 환경은 인권문제나 건강권,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폐하고 열악하며, 다문화공간과 비다문화공간의 경계를 넘지 못한 채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미지로 인한 공포, 불안, 위험구역으로 인지된다.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는 우리 사회에 포섭되거나 융화되지 못한 다문화공간은 경계 너머에 지리적 타자성을 지닌 채 구획되어 있다. 이주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쓰레기처럼 불결한 것으로 표상되며 그들이 거주하는 다문화공간 또한 우범지역, 슬럼가, 계도화된 구역으로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화해서 분류하고 분할하는 기표를 구성⁵¹⁾한다. 다문화적이고 디아스포라적인 특성을 갖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공간과 비다문화공간은 경계가 더욱 분명하고 강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시설 속의 이주자 양상이 피해자 또는 사회적 약자로서만 표출되고 있듯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다문화공간에서도 낙후되고 지저분한 우범지대로 그려짐으로써 문화의 혼종성이나 긍정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주와 정착에 대한 꿈과 소망이 범죄와 폭력, 불평등, 차별로 인해 좌절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또한 이주자의 거주공간이 상투적이고 피상적으로 재현되고 있어 인종적·민족적 특색에 따른 혼종적이고 복합적인 다문화공간의 이면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해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 및 문화적 노력도 필요하다.

51) 바우만, 조은평 외역,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유동하는 근대 세계에 띄우는 편지』, 동녘, 2012, 356-357쪽.

참고문헌

연구대상작품

- , <가리봉 연가>, 실천문학사, 2005.
-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 <아홉 개의 푸른 쏘나>,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문학사, 2005.
- 박찬순, <가리봉 양꼬치>,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지성사, 2009.

논문

- 김현미,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 평화』 제5권, 201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1-142쪽.
- 문재원, 「경계넘기의 서사적 재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31-255쪽.
- 문재원,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 301-331쪽.
- 문재원 외, 「이동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44쪽.
- 박세훈 외,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2010, 71-101쪽.
- 박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23-239쪽.
- 송명희, 「다문화소설에 재현된 결혼이주여성: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5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

133-154 .

- 송현호, 「〈가리봉 양꼬치〉에 나타난 이주 담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49-372쪽.
- 신명직, 「가리봉을 둘러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87이후의 가리봉을 그린 소설과 영화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6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47-90쪽.
- 이미림, 「집시와 심청(바리)의 환생, 21세기 이주여성」,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한중인문학회, 2012, 311-335쪽.
-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73-401쪽.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제38집, 한국사회학회, 2004, 189-219쪽.
- 장희권 외, 「전지구화과정 속의 타자와 그들의 공간」, 『코기토』 제69권,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0, 211-244쪽.
-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대한지리학회, 2008, 894-913쪽.
- 홍원경, 「《나마스태》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다문화 콘텐츠연구』 제7권,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53-177쪽.

단행본

- 도시인문학연구소, 『경계초월자와 도시연구』, 라움, 2011.
- 정병호 외, 『한국의 다문화공간』, 현암사, 2011.
- 조주현, 『별거벗은 생명』, 또하나의문화, 2009.
- 최병두 외,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2011.
- 허영식 외,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 이담, 2012.

-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 나라 유발-데이비스, 박혜란 역,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 낸시 홈스트롬 엮음, 유강은 역,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데이, 2012.
- 데이비드 허다트,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 레이 초우, 장수현 외역,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Patrick SAVIDAN, 이산호 외역,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경진, 2012.

<Abstract>

A Study on Geographical Otherness in Multicultural Spaces

-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novels in the 2000s

Lee, Mi-Rim*

The reality of reinforcing multicultural and diaspora situations has been witnessing the progress of multicultur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spaces. Being located in the areas of 3D jobs, sex business, and caregiving labor avoided by the Korean citizens, immigrant workers live in groups at job sites such as the surroundings of their plants, karaokes, clubs and military campside towns, dwelling arrangements such as rooftop rooms, single rooms, containers, and pig shed-turned rooms, and in redevelopment zones. Indicated by its titles including “Yanbian Street,” “Little China” and “Joseongjok Town,” Garibong-dong of Guro-gu, which is the backdrop of *The Love Song of Garibong* and *The Lamb Skewers of Garibong*, forms a network of Joseongjok diaspora and exchanges and shares information for dispersed life. Deteriorated, dirty, and dangerous multicultural spaces are described as crime-ridden districts, slums, and redevelopment zones where homicide takes place at the ends of the novels. The backdrop of *Nine Blue Sonyas*, Itaewon is full of prostitution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attracts a lot of foreigners. Sonya, who is an immigrant Russian lady, cannot find comfort or rest at her rooftop room and club and is subjected to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violence, extortion, and forced sex by her boyfriend and broker. She leads such a hard and humiliating life. She is treated as the object of sexual desire and that of transnational control that can be easily handled as an obedient and quiet Asian woman of Orientalism at this place overwhelmed by sex, money, alcohol, and violence. *Namaste* and *The Elephant* have their backgrounds at the plant complex of Bucheon and Shiksa-dong, Goyang, respectively. Violating the health and housing rights, those places are located in shabby and dirty redevelopment zones with an odor. The two novels describe Nepal and South Korea as the high sacred Himalayas and the low plant complex, respectively, in a dual fashion, reporting the South Korean society full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multicultural spaces in Garibong-dong, the community of Joseonjok diaspora, Itaewon with a dense population of foreigners, and industrial complexes near Seoul represent geographical otherness. In addition, multicultural spaces draw a line from non-multicultural spaces and create a culture and space of “their own.” Immigrants with a weak sense of place and loss of place fail to become the members of society(Koreans) and settle down. Dirty, dangerous, and fearful multicultural spaces neglected like garbage are locate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ociety, which makes the advent of true multicultural society a thing of distant future.

Key Words : multicultural space, diaspora community, loss of place, geographical otherness, naked life, beyond the boundaries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4월 4일